

# LUXURY

JULY 2015



## Seoul Beauty Spot 50

이국적분위기의 액세서리  
Summer Flower Styling  
바닷가재가있는여름식탁

*Cartier*

# Agenda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02-01',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approx. 2400hrs / 4persons, 265×357cm, 2013~2014

## 북한의 자수공예가들과 나눈 '예술'

오는 7월 5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함경아 작가의 작품은 시각적으로나 기법에 있어서나 무척 매력적이다. 우주를 배경으로 총천연색이 폭죽 쇼를 하는 듯 색감과 구성이 화려하다. 상들리에와 사과껍질, 사탕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지며 기괴한 쇼를 하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 대표작은 거대한 캔버스에 '올린' 상들리에다. 수만 개의 크리스털과 빛의 영롱함까지 완벽하게 담고 있는데 극사실주의 작품과는 또 다른 묵직함과 신비로움이 있다. 비밀의 열쇠는 소재에 있다. 작가는 디지털 작업을 통해 작은 단위로 픽셀화한 이미지를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에게 보내 그림만큼이나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으로 완성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색의 실을 이용해 어떻게 미세한 음영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감탄스럽다. 작가는 "어느 날 집 앞에서 냉전 시대, 선동적 프로파간다의 상징인 '삐라'를 봤다. 그런 허상에서 비껴나 북쪽에 있는 불특정 다수와 예술적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다. 대형 상들리에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 안에 'Are you lonely too?', 'Money never sleeps' 같은 문장을 넣은 건 이 때문이다. 상들리에를 주요 소재로 삼은 이유는 제국주의와 권력, 부귀영화와 쇠락 등 다층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도안 전달은 '중간자'가 맡아 도와주는데 압류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기다려야 한단다. 전시 타이틀은 <유령의 발자국 Phantom Footsteps>이다. ● 글 정성갑기자